

하박국 강해⑤ “명쾌한 해답 - 단지 지체될 뿐이다”

하박국 2장 1-3절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목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 이 목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나눌 말씀에는 하박국의 우매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첫째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고 있을 뿐이고,
둘째는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기엔가 ‘시험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믿고 시험을 치르도록 했었는데,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교를 뒤에 세워두고 나는 앞에 서서 학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책상에 무언가를 써 놓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모든 소지품은 다 가방에 넣거나 내려놓고 시험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갑자기 변한 교수의 모습이 당황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보호하여 정당한 결과를 얻게 하고, 정직하지 못한 학생들은 외부의 압력을 넣어서라도 정직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험 감독을 하며 앞에 서서 보니, 시험을 대비해 무언가 준비해온 학생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담대하게 준비해서 가져온 뭔가를 보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바로 지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발하는 순간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저는 학생들에게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한 번만 용서합니다. 조심하세요!”

바로 커닝하는 학생들을 잡지 않고 경고한 이유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적어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 그래서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게 된 것은 바로 저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응답이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니 그 마음을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속히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해야 하십니까?”

때로 이런 의문들이 열심히, 그리고 선하게 살려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인 지혜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비관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 14절

11.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14.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보편적 정의에서 보면 커닝을 한 학생을 바로 잡아내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 심판을 유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의의 가치가 아닌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미련이 있다면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비극적인 것은 누군가의 악함은 그렇게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의 악함에는 무지하거나 무감각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악함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그 심판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디. 하박국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느끼는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답답하기만 하고 문제를 파악할 수조차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이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말씀 하박국 2장 1절을 보십시오.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구절은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기다림으로 인한 조바심이 아니라, 기다림의 이유를 알아가는 것이죠.

답답하십니까? 하박국처럼 높은 망루에 올라가 보십시오. 높은 파수대 위에 올라가 보십시오. 사방이 흰하게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끌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하박국이 답답한 이유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악을 행하였다고 해도 이방신을 섬기고, 불법을 행하는 갈대아 사람들보다 나은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기다리기로 작정한 것 입니다. 그런데 그의 방법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수하는 성루'란 높은 곳입니다. 내 환경의 반경을 뛰어넘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사야의 이런 고백이 생각나시나요?

이사야 55장 8-9절

- 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며, 알기를 원하며, 깨닫기를 원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때로 열광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것도 즉각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무렵 가장 시급한 것이 '성경공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보다 더 건강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의지만 있으면 모일 수 있는 시간인 금요일 밤 11시에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공부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육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한 교사가 꼭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시간을 바꾸어 밤 11시에 모인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 분 때문에 시간을 바꾸지는 않았습시다. 모든 여건을 고려한 것이죠. 그러데 그 분은 자신 때문에 시간을 바꾸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적용 해본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릴 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며,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쉽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소풍가는 날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세상에 어떤 가뭄이 오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시험시간에 커닝을 하면서 들키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에게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신앙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겠다는 성숙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 자신의 신앙의 지평을 넓히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되어 성루로 올라갔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루에 올라가 있는 파수꾼의 심정은 어떠한 것일까요?

열심 있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약속을 결코 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다루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나니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사도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나타난 바로 그런 심정일 듯합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다림에서 들려오는 응답!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2.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이 듣게 된 응답은 '묵시를 기록하라' 는 것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점차로 깨닫게 되었지만, 이 깨달음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박국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보다 더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를 보는 것이죠. 하박국에게도 열심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응답받지 못함이 참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많으니

말입니다.

이제 하박국이 받은 묵시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새기라고 합니다.

더구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이 풀 수 없었던 의문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몇 사람들만이 소유하는 비밀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는 순간 모두에게 알려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그 내용을 “명백” 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신명기 10장 1-5절에 나오는 장면, 십계명을 돌 판에 새기라는 명령이 생각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돌 판에 새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새기라는 것이었고, 돌 판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뛰어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헨더슨(Henderson)이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그것을 읽는 자들이 속히 달려가서 그 내용을 전파하게 만들라”는 의미도 가진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복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전파되고 증거 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묵시의 ‘정한 때’는 심각한 경고인 동시에 소망에 찬 기대가 공존하는 역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문과 상관없이, 우리의 이해와 관계없이 정한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갈대아 사람들이 심판이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정한 때가 되면 속이 이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3. ...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는 부활로, 믿지 않는 이에게는 심판으로 오게 될 때입니다. 이것이 긴박한 이유는 우리들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식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루에 올라가 여러분의 의식의 지평을 넓히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실망하며, 원망하던 불신앙의 모습들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결단코 응답해주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혹 절망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아직 죄 가운데 있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녕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말은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결단코 응답하시고야 마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